

전주 첫마중길, 젊음 가득한 '한복판'

한복패션쇼·모델선발·가운누리장터 등 열려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한복패션쇼가 열리고, 전주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인 다양한 문화장터가 열리면서 젊음과 문화로 가득 채워졌다.

시가 문화예술진흥 민간단체인 청춘맞장구, 청년마을은 8일 첫마중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김병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 이남호 전북대 총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한복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인 '첫 마중길 한복판'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한복의 멋과 신한복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는 화려한 한복패션쇼가 펼쳐졌다. 또, 한복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한복 모델을 선발하는 대회도 열렸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한복을 직

접 입을 수 있는 한복체험부스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한복포토존 등도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첫마중길에서는 지역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고, 청년들이 열정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향한 꿈이 되기 위해 응원해주는 전주청년상상놀이터 '청년 가운누리장터'도 열렸다.

청년 가운누리 장터에는 전주대학교와 전북대학교 학생 등 전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사업가 30명이 참여해 홍보와 전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는 등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했다.

또한, 이날 첫마중길 워터미러에서는 발을 적시며 뛰어놀 수 있는 물총축제가 온종일 운영되면서 행사장

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으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우아중 상생협의체에서는 지역 특화거리인 첫마중길 조성을 기념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가객 파티도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어르신 포도대, 한복 서포터즈, 한복을 입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거리 대행진이 펼쳐지는 등 다채로운 한복잔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00m 구간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한 길로 기차를 타고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첫마중길에서 청년들과 민간단체 주도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복 관련 문화행사

가 열리게 되면서, 첫마중길을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람으로 가득한 광장과 거리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아가, 첫마중길이 성공창업을 꿈꾸는 전주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이러한 기회가 청년들의 도약과 성장으로 이어져 청년행복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에도 첫마중길을 다양한 문화행사로 채워 전주의 관광을 사람과 생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가자,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활기찬 미래를 열 지역청년들과 가장 전주다운 한복, 전주의 첫인상을 바꿀 첫마중길이 만난 이번 행사는 전주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첫마중길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채우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사람과 문화, 생태, 일자리가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현직 판사 블랙리스트 폭로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 "시민 관심 청원" 호소

차성안(40, 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차 판사가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판사들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판사들의 정보를 관리한 자료를 말한다. 현재 일선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차 판사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법원행

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 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이후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합동해 싸워 지난달 19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무관심과 냉소에 물릴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고 호소했다.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인 차 판사의 온라인 청원에는현재까지 1만명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김민근 기자

문지마폭행한 40대 구속 영장

경찰은 길가는 여성을 상대로 유리병을 던지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40대 불검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피의자 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나가던 20대 여성에게 유리병과 돌을 던지고, 같은 날 지나가던 다른 여성에게도 유리병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또한 카페에 앉았있는 여성들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 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서 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맘에 들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진은 취약계층을 방문.

옛 동업자 장부 훑친 40대 구속

7일 전북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아간 건조물침절도 혐의로 A(40,남)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오후 8시 15분께 피해자 B(47,남)씨가 퇴근한 사이 공업사 담장을 넘어 서랍에 있던 장부를 훑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보건소, 취약계층 폭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전주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문보건센터는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중 여름철 온도 변화에 특히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4,5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와 건강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간호사와 건강도우미들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폭염대비 건강수칙 등도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안부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예방 및 집단 건강교육도 실시한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는 7일 올해 새로 선정된 12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자문위원회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쓰레기 단독(가로청소 포함), 일반쓰레기 공동2, 음식물 단독2, 음식물 공동2, 재활용품2, 대형폐기물2 등 12개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평가기간 전반에 걸쳐 도시 청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수시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민원현장을 직접 접하

는 청소담당자들의 의견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나서게 된 것은 실질적인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평가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12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우수업체에는 향후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길거리 탐방

전주시 도시 관광자원 발전과 이해를 위한 도시관광 현장 길거리탐방이 추진된다. 전주시 관광산업과는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해 발전하고 있는 도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프로그램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객리단길(객사길) 일대와 첫 마중길, 신중양시장, 덕진공원 일대에 대한 현장 길거리탐방을 추진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과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 50여명은 7일 최근 20~30대 젊은층 방문객의 이어지고 있는 다가동 객사길인 영화의 거리와 객리단길을 찾아 최근 변화되고 있는 지역상권과 길거리문화를 돌아보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주 객리단길은 다가동 객사 인근 지역을 종패지관 '객사'와 서울의 '경리단길'을 합쳐 부르는 신조어로 지난해 3월 구도심인 이 일대의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소자본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 개성 있는 맛집과 카페를 개업하면서 현재 30여 곳의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곳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시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과 신중양시장, 덕진공원 일대 등을 찾아 전주 도시관광과 생활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Good 농산물